

협회뉴스 중앙회, 중국 지면공난과 간담회 가져



지난 2월 21일 L.G화학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중국지면공난(바닥난방)위원회 일행(20여명)이 전국보일러설비협회(회장 박기준)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박기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여러분이 한국을 방문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를 방문해 준데 대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우리 협회는 국가기술자격인 온수온돌 기능사와 난방 시공인의 단체로서 시공인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온돌난방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과학적인 난방구조로 건강에도 매우 뛰어난 온돌난방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온돌난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는 협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중국 지면공난 위원회 부회장(左普洲)은 인사말에서 “중국의 주택건설은 에너지 절약형 난방에 관심이 많으며 그에 부합하는 한국의 바닥 난방이 고급주택 등에 시공되고 있다”며 “전국보일러



▲중국 지면공관 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지면공관 위원회 부회장이 박기준 협회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설비협회와 학습을 위한 교류를 바란다. 돌아가면 여러 임원들과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양국의 협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방문자들은 협회의 운영방법, 시공표준규격, 검사제도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단체의 연혁과 현황에 대한설명도 있었는데 중국측 劉浩

비서장은 중국공관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발족하여 회원들의 기술습득과 기술인 배양에 노력하고 있으며 월간지를 발행하고 회원관리는 등급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 협회는 앞으로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회원의 상



호방문과 온돌난방기술을 전수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협정서초안을 작성하여 교환키로하므로써 이르면 금년 중에 양 단체간의 인적교류와 우리의 온돌난방시공기술을 중국에 전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